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군산시연합회, 농업경영인가족대회 개최

- 군산시연합회(회장 성낙도), 9월 19일 군산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제17회 군산시농업경영인가족대회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최했음
- 이날 대회에는 문동신 시장, 진희완 시의회위원장, 김관영 국회의원, 양용호 도의원, 전창재 도회장 및 임원, 시군회장, 농관리기관 및 단체장, 회원 가족 등이 참석하였음

○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 서귀포시연합회(회장 김한중)과 한여농서귀포시연합회(회장 김순일)은 9월 18일 제4회 서귀포시농업경영인대회 및 제1회 서귀포시여성농업인대회, 최고경영인상 시상식을 서귀포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에서 개최했음
- 이날 대회에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과 현을생 서귀포시장을 포함한 한농연·한여농 회원 500여명이 참여했음

○ 울주군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 울주군연합회(회장 박규열), 9월 22일 삼남면 작천정 입구 운동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울주군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했음. 행사는 농업경영인 토포니, 문화·체육행사, 농산물 전시, 가족잔치 등으로 진행됐음
- 이날 대회는 농업 경영인의 위상 정립과 유대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임

지방 농정 관련 소식

○ 경북 성주군 12개 마을 '별고을 택시' 시범 실시...택시요금 500원

- 경북 성주군이 9월 24일부터 벽진면 지역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일명 '별고을 택시' 서비스를 시범 실시함
- 이번 별고을 택시 서비스는 성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 수요가 미약해 기존 버스 노선이 폐지된 구간에 대해 버스를 대신해 택시로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사업임
- 성주군에 따르면 별고을 택시는 오는 24일부터 시범적으로 벽진면 지역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이 벽진면 내에 운행 중인 택시와 사전예약을 통해 예정된 시간에 택시가 해당 마을로 들어가거나 소재지에서 해당 마을까지 주민들을 수송하는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임
- 특히, 별고을 택시는 시범운행 마을의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 500원만을 부담하면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 성주군이 택시회사 등에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최근 벽진면 사무소에서 가진 주민 설명회에서 시범마을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음

- 성주군 관계자는 "별고을 택시를 벽진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한 후 향후 주민 호응도와 운행효과, 개선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의 범위를 타 읍·면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 경북 청도군 운문면사무소, 오지마을에서 5일장터까지 농산물 수송 지원

- 청도군 운문면사무소가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까지 오지마을 농산물 수송을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운문면사무소가 8월 중순부터 면사무소의 공무원 1톤 화물차량을 통해 운문면 가운데서도 오지마을로 손꼽히는 마일리와 봉하리, 정상리 등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근 금천면 등지에서 열리는 5일 장터까지 운송하는 주민지원에 나선 것임
- 이로써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장터에 운반할 농산물을 마을버스를 통해 운송해오던 오지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농산물이 가득한 버스를 이용해 불편을 겪던 일반주민, 농산물을 운송하면서도 화물 운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을버스 운송회사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음

○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쌀농가 소득안정 도모

- 전라남도는 전남도 자체적으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이는 2012년 제정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임
-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력 절감 및 공동 영농 시설에 지원하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도 내년부터 150억원(올해 133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임
- 아울러 정부의 쌀 산업발전 대책과 연계해 10월말까지 생산비절감, 농업기반시설확충, 품질고급화, 유통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한다는 전략임
- 이미 생산비절감 T/F팀과 농업정보팀을 본격 가동중이며, 친환경농업도 유기농 중심으로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력 절감과 안전영농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임
- 아울러 품질고급화·조직화를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종자 보급과 들녘별경영체도 육성하며, RPC 통합과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